

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-Sufficiency and Welfare

KDISSW 자활정책 Brief

발행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

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자활사업의 방향

김경휘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
-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.
-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,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자활외부 환경 변화

- 맞춤형 급여 실시
- 국민취업지원제도
-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생계 수급자 확대
- 청년자활 확대
- 신중년 확대



자활 내부 환경 변화

- 조건부수급자 비율 감소
- 차상위계층 및 일반수급자 참여율 확대
- 1인가구 비율 확대
- 자활기업을 통한 창업율 절대 감소
- 참여자의 근로능력 저하
- 사회서비스형사업 확대 및 시장형 사업 감소
- 정서적 자활 중요도 높아짐



자활사업 개편 방향

- 이런 변화 속에서 기본 자활사업의 갖는 한계 즉, 보충급여 및 근로의욕 저하, 취창업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.
- 그런 변화 중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초법에서 자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기존 자활사업 목표인 취업 및 창업률 문제, 조건수급자 참여의 조건들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기초법에서 분리함.
- 즉, 근로능력이 낮은 참여자는 생계급여를 100%(19년 조건부수급자 약 4만명) 지급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고,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(19 약 12만명(차상위, 일반수급자, 특례자)에 대해서는 IAP, ISP를 수립하여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.
- 이때,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기존 250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. 지역자활센터 지역 유형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달리 부여해야 함. 센터별 획일화된 사업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의 특성과 장점에 맞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.
- 지역자활센터 기능별 통합도 다시 논의가 필요함.
-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정규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함. 이마 여러 센터가 사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-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, 이 역시도 지원기관이 종료되고 목적에 달성되지 못한 집단 및 심사에서 탈락한 집단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연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까지 자활사업은 매우 복잡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서 정규사업으로 전환 또는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유지하는 경우(자활사례관리,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)가 많음. 이러한 사업들을, 자활사업 20년이 되는 상황에서 정리 할 필요가 있음.
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

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, 최대 300만원)

II 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 195.4만원)

2020. 1. 1일 제도 시행 이후, 6.29. 기준 331,626명이 신청하여 261,809명(I 유형 213,976명, II 유형 47,833명)이 참여 중.

8.6. 기준 37.6만명 신청, 29.7만명(추경 후, 60만원 예상)-6만명 탈락
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4월 8일 기준 253,020명이 신청했고,

적시 지원을 위해 신속심사 지급에 집중하여 184,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, 이 중 118,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

I 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5,449명 중 청년(18~34세)은 90,807명으로 58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여성은 83,784명으로 53.9%

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: 월별 순참여인원(25백명): (~5월) 574, (6월) 607, (7월) 1,021, (8.1~8.6.) 259